

“에케 호모”

요한복음 19:1-5

오늘 말씀은,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을!” 이라고 외치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 하면 “에케 호모”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헤쳐 나오기 힘든 절망과 어려움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다 우리는 허들 경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 넘으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주시는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들은 그곳에 주저 앉아 허우적 거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절망의 순간을 뛰어 넘고 이겨 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꿈과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포함한 4 개의 복음서 가운데, 이 ‘에케 호모’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가 유일합니다.

왜 요한복음서에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서를 작성한 사도 요한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을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 1:36)

이라고 두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빌라도의 ‘보라 이 사람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온갖 핍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핍박을 받으신 것은, 그 분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십자가 고난을 경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에케 호모!’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 보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 보아야 하는 것은 절망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상황’ 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 가신 하나님의 어린양, 즉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케 호모!”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 한분께만 고정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 한분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넘어서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허들 경기의 장애물과 같은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넘어서지 못한 실패 사례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 역시 우리 삶의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